□ 연구논문

기독교 상담의 목회 현장 적용점 모색

심수명(Ph.D.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오늘날을 가리켜 '위기의 시대'라고 한다.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저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The Crucified God)'에서 오늘날의 신학과 교회, 그리고 인간의 실존은 '정체성의 위기'와 '관계성의 위기'라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1] 정체성의 위기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본래적 의미의 상실이라 하겠으며, 관계성의 위기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자연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두 위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대화와 만남이 어려워짐에 따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이로 인하여 이 시대의 가정해체는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3] 이는 사회와 국가 전체에 큰 위협으로 작용될

---

1) Jü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The Cross of Jesus as the Foundation and Criticism of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3), 7.

2) 오제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위한 목회상담에서의 치유적 패러다임," 「기독신학저널」 통권 제 3호(2002): 178.

3) 2003년 총 이혼건수는 167,100건으로 2002년 145,300건에 비하여 21,800건으로 15% 증가하였고, 조이혼율(인구 천명당 이혼건수)은 3.5건이다. 2003년 이혼부부의 동거기간을 보면 4년 이하는 24.6%로 10년전(93년 35.8%)에 비해 11.2% 감소하여 꾸준히 줄고 있는 반면,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은 93년 5.3%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상담은 이제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 되었다. 웨인 오우츠 목사는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훈련 정도에 관계없이 목사는 자신이 교인들과 상담을 하고 안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교인들은 최선의 지도와 가장 현명한 배려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늘 목사에게 온다. 그가 목회를 계속하는 한 이런 일을 피할 수는 없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상담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훈련된 기술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하는가 아니면 훈련이 안된 미숙한 방법으로 하는가이다."[4]

이처럼 상담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현실을 보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해결의 열쇠를 붙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경에서 상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기독교 상담의 정의, 목표, 특성,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기독교 상담을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모색점 마련을 위해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상담실태를 대형교회 위주로 살펴보고 현재 연구자의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목회현장에 적용해 왔는지 하나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 교회에서 상담목회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한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II. 펴는 글

1. 상담에 대한 성경적 입장

서 2003년 17.8%로 12.5% 증가하였다. 통계청,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2004. 3).

4) W. E. Oates,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ounseling* (Nashvile: Broadman, 1959), 6.

성경에서는 상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먼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야에 대해 훌륭한 상담자(wonderful counselor: 모사)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사 9:6). 또한 신약에서는 상담을 덕을 세우는 일과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 언급한 권위하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롬12:8)은 오늘날의 상담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짐을 서로 지라"(갈 6:2),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롬15:1)라든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살전5:14)의 내용 등이 상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5)]

이외에도 신약에 나오는 상담에 관한 동사로는 파라칼레오(παρακαλεω),뉴데테오(νουθετεω), 파라뮤데오마이(παραμυθεομαι), 마크로듀메오(μακροθυμεω)가 있다.[6)]

첫 번째 파라칼레오(παρακαλεω)의 의미는 '간청하다, 권하다' 혹은 '격려하다, 위로하다'이다. 이 단어는 다음에 사용되는 뉴데테오(νουθετεω: 훈계하다)' 보다 부드러운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비슷한 동사는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로마서 15장 3절에 언급되고 있다.

두 번째 뉴데테오(νουθετεω)는 상담이라는 문맥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보통 '기억하다, 경고하다, 직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것은 제멋대로 하는, 훈련되지 않은, 혹은 충동적인 것을 훈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동사는 파라뮤데오마이(παραμυθεομαι)이다. 이것은 '힘이 나게 하다, 격려하다'이다. 이것은 누군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

5) Norman Wright 외, *How to Bring out the Best in Your Spouse,* 임종원 역, 「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9), 22-23.

6) Norman Wright, *Training Christians to Counsel* (Eugene, OR: Harvest House, 1977), 22-23.

네 번째 동사는 마크로듀메오(μακροΘυμεω)로서 이것은 '인내하거나 인내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6절, 18장 29절, 야고보서 5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수동형 동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전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심리적 필요를 해결해 주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마 10:7, 8),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살전 5:14).

2. 기독교 상담

1) 기독교 상담의 정의 및 목표

기독교 상담을 정의하거나 기술하고 있는 글을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상담자), 상담에 사용된 기법, 그리고 상담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상담자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헌신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술, 훈련, 지식,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해 주며,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7]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가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용서, 창조의 섭리와 통치, 인간의 본성, 성경의 권위, 죄의 실재, 사후세계와 미래에 대한 소망, 인간 역사의 의미 등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게 된다. 기독교 상담가들은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 가치 및 인식을 변화시키려 함에 있어서 내담자의 영적인 성장을 자극하려 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도록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태도, 가치관, 생활상의 모범을

7) Gary R. Collins,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Dallas: Word, 1991), 4.

보이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의탁하도록 격려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동기부여 한다.[8)]

또한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사람들을 각자의 생활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고, 영적, 심리적, 그리고 인간상호 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자극하며, 자기 자신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도록 이끌며,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계발 및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깨우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일이다.[9)]

이 때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거나 한때 크리스챤이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이해가 상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골 1:28-29).[10)]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러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배경은 영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상담자는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목표를 마음 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내담자를 사로잡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한다. 둘째,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속에 숨어있는 죄된 본성을 발견하여 올바른 삶의 질서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셋째, 내담자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수용의 태도를 갖게 한다. 넷째,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끈다. 이것이 가장 핵심되는 목표로서 영적인 치유를 통해 전인이 새로워지도록 돕는다.[11)]

---

8) 정동섭,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서울: 요단출판사, 1999), 63.

9)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혜련 역, 「크리스챤 카운슬링」(서울: 두란노, 1984), 40.

10) Wright, 19.

11) 그 외에도 게리 콜린스는 다음과 같이 기독교 상담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① 필요할 때 지원해 준다. ② 감정의 표현을 격려해 준다. ③ 문제 행동에 대해

2) 기독교 상담의 독특성

기독교 상담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상담이다. 다만 성경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경적 상담과 성경적 접근, 또는 성경적 기초 위에 상담하는 성향들이 나타날 것이다.[12] 따라서 기독교 상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세속 상담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첫째, 기독교 상담[13]은 나약한 자아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관계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내담자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아능력을 갖도록 도우신다. 따라서 상담 관계에 제3자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상담자나 내담자의 기대보다 더 풍성하게 치유하며 도우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14]

둘째,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의 건강한 인격을 목표로 상담할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셋째, 기독교 상담이 추구하는 것은 복음적 영성을 중심으로 한 전인 건강이다.

넷째, 기독교 상담은 죄악된 행동과 감정을 유발하는 그릇된 생

지적인 통찰을 달성하도록 도와준다. ④ 죄, 무책임,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행동, 생활의 모순 등 문제를 직시하도록 한다. ⑤ 사교 요령을 가르친다. ⑥ 문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쓸 때 격려하고 인도한다. ⑦ 정보를 찾아 이를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⑧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버리도록 도와준다. ⑨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⑩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찾고 있는 이들을 인도한다. ⑪ 삶을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 제자로서 성장할 것을 권고한다. ⑫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내담자를 전문가에게 위탁한다. Gary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훌륭한 상담자」(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91.

12) 전요섭,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좋은 나무, 2001), 8.

13) 기독교 상담을 검토할 때 Jay E. Adams의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과 Bobgan의 영적 상담, Jin Craddock과 Lawrence Crabb, Selwyn Hughes의 성경적 상담, Collins와 Gary Sweeten의 제자 상담, 성장 상담을 강조한 Howard Clinebell과 대화 상담을 강조한 Paul Tournier의 관계 상담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다. Roger Hurding, *Roots and Shoots: A Guide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김예식 역, 「치유 나무」(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0), 330-331.

14) 오성춘, 「목회 상담학」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3), 375.

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는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악된 감정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면 후에 더욱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바울은 변화(transformation)란 감정이나 환경을 일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구원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행동과 감정을 유발하는 그릇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는다.

3)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즉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로 인해 인간성은 점점 상실되고 있으며, 인간관계는 더 피상적이 되어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빈곤 및 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의 성도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인해 갈수록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성자들의 박물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또는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15] 이런 현대인들을 주님이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니고데모와의 만남이나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담에서 보여주듯이 주님은 그들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상담에 참여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그 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16] 이제 목회자들은 상담의 중요성을

15) Tan Siang-Yang, *A Lay Counselor*, 편집부 역, 「평신도 상담자」 (서울 :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9), 21.

16) Tan, 24-25.

깨닫고 자신뿐 아니라 교인들도 상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교회에서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상담 받을 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개별적인 상담이 없이는 개별적인 보살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셋째, 상담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며, 넷째, 상담은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재료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다섯째, 사람마다 알게 모르게 상담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라도 조언을 해주었다면, 그것은 바로 상담을 해준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담의 기본상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특히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하다.[17]

그렇다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담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골1:28).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가 상담을 해줄 것인가? 상담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경우 목회자들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성도들과의 상담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 상담을 전담하는 교역자가 상담을 하거나 상담훈련을 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상담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18]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서로 권면하라(롬12:8)"고 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각 부분이다. 한 사람이 울면 나머지도 울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인 것이다.

---

17) 황규명, "상담과 목회의 실제," 한국 성경적 상담학회,「성경과 상담」제2권 (2002): 44-46.

18)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서울: 서로사랑, 2001)과 "평신도 상담자 훈련 모형에 관한 일 연구"(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1)를 참조.

3. 기독교 상담의 목회현장 적용점 모색

1)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모델

신학과 심리학은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가진다. 양자가 갈등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앞선 원리나 전제와 관련되어 있다. 신학자나 심리학자는 동일한 사실을 본다. 그러나 양자는 이 사실을 수집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심리학이 행동주의나 실험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심리학자처럼 인간의 정서와 가치와 희망을 인정한다면 보다 넓은 관점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신적인 초자연적 만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심리학은 가장 포괄적인 관점을 갖추게 될 것이다.[19]

통합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내담자의 독특한 필요들과 생활상의 문제 전반에 있어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며, 종합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절충적인 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합 모델은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원천이 되신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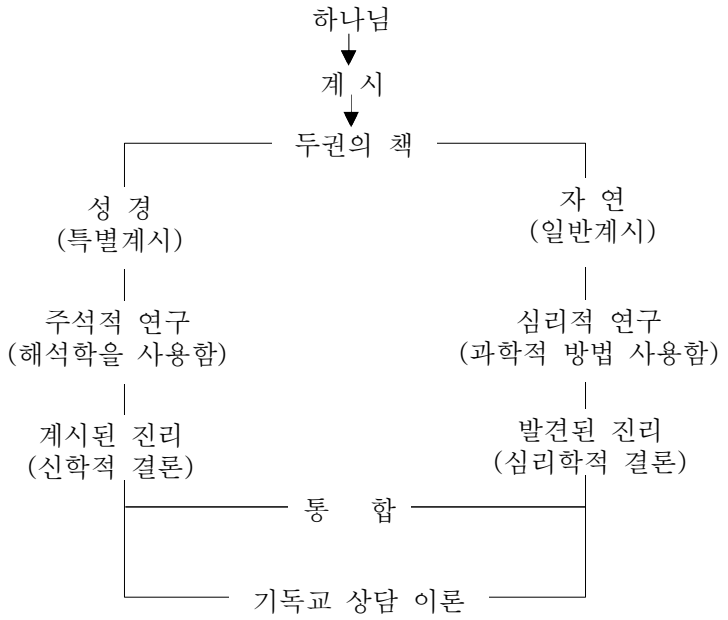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진다. 결국 기독교와 심리학은 분열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의 발견을 위해 서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림-1>은 이 둘의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서 기독교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을 통해 1920년대 후에 발전한 것이 목회심리학(Pastoral Psychology), 또는 기독교 상담학(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이다. 기독교 심리학자는 하나님의 계시와 과학의 참된 사실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고 믿기에 심리학은 교회지도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의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도구인 것이다.[21]

---

19) 김영한, "심리학과 신학: 심리 치료와 목회 상담," 「새천년 목회 상담과 심리 치료의 실제」 숭실대학교 제8회 전국 목회자 신학 세미나 (2000), 32.

20) 정동섭, 33-35.



<그림-1>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22]

2) 한국 교회 상담 적용 실태

한국교회에 기독교 상담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50년 후반에 한두 명의 교수들이 산발적으로 기독교 상담을 강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초기에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 교육을 지도한 외국 선교사 리어로프(Van Lierop) 박사에 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때 기독교 상담 교육과정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연결하여 임상목회교육(CPE)이 도입되었다. 그 후부터 세브란스병원 이외에도 한신 대학교가 한양대학병원과 연결하여 임상목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리교

21) 정동섭, 38-39.

22) Lawrence Crabb,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인간 이해와 상담」(서울: 두란노, 1993), 54.

신학대학에서도 80년대 초기 전후로 시작되었던 CPE 교육이 최근에 다시 개설되었다. 하지만 임상목회교육의 장이 아직도 많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에 여러 신학교 교육과정에 기독교 상담, 종교심리, 교육심리, 상담심리, 정신위생과 같은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학이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11월 Collins 박사가 내한하여 '목회상담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23] 그 이후 최근까지 기독교 상담학 분야에서 이론과 실제 뿐 아니라 임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시도는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24]

연구자는 이러한 한국 교회내의 상담 사역 현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하나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2001년에 시도하였다.[25] 조사의 방법은 먼저 각 교회 상담실에 교회 상담 운영에 대해 알고 싶다는 공문을 팩스로 보낸 후 상담실 책임자와 만나거나 전화 연락, 또는 인터넷 자료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월간지인 '가정과 상담'의 교회 탐방 내용도 참조하였다. 각 교회의 상담실 책임자에게 주어진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내에 상담실이 있는가? 둘째, 상담실 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 셋째, 당회장의 상담에 대한 철학 및 상담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가? 넷째, 교회 내에서 평신도 기독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다섯째, 훈련된 평신도 상담자가 있는가? 여섯째, 상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속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곱째, 상담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위의 질문들에 대한 상담실 책임자의 답변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1년도의 대형 교회 5곳의 상담 운영 실태를 요약, 정

---

23) 정동섭, 39-40.

24) 기독교 상담학 분야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생략하였고 한국교회의 상담 사역 실태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25) 심수명, "평신도 상담자 훈련 모형에 관한 일 연구", 44-50.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락 교회

상담부 조직으로는 교역자 및 임원(7명), 실행 위원(30명), 연구조 조장(10명), 전문 상담원(9명), 인터넷 전문 상담원(30명), 상담 교육 위원(4명), 부부 상담원(20명), 특수 상담원(7명), 그리고 전화 상담원(17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 내용 및 프로그램은 <표-1>과 같다.

<표-1> 상담 프로그램

구 분	대 상	종 류
부부 교육	예비 부부	결혼 준비 교육
	교우 부부	부부 성장 교육
상담 교육	일반 교우	평신도 상담 교육
	상담원 희망자	상담원 양성 교육
	일반 교우	소그룹 상담 교육
전화 상담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
전문 상담	정신장애자 및 가족	달리다굼
	일반 교우	정신 건강 상담
	일반 교우	세무 상담
	일반 교우	법무 상담
	일반 교우	금융 경제 상담
	일반 교우	교통사고 상담
	일반 교우	만성 난치병 상담
	일반 교우	병무 상담
Internet 상담	일반 교우	Internet 전문 상담
특수 상담	일반 교우	결혼, 직업 상담

영락 교회는 상담을 위한 교육이 전체 교인 대상의 평신도 상담 교육과 평신도 상담원 양성자 훈련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담원

교육을 받은 평신도 상담자는 모두 전화 상담원으로만 봉사하고 있고 그 인원은 현재(2000년 8월) 180명 정도이다. 그리고 면담 상담 및 특수 상담 등 전문 상담은 평신도가 아닌 전문 상담가가 따로 상담하고 있다.

(2)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상담을 전공한 4명의 상담 전문가가 상담실에 근무하여 교인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부 사랑의 교회 직원으로, 사례를 받고 있다. 1명은 주 6일 근무하며 나머지 3명은 주 2-3일, 요일별로 나누어 상담실에 근무하고 있고 경력과 근무 시간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사례를 교회로부터 받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생겨나는 삶의 문제를 전문 크리스천 상담사가 면접 상담을 통하여 돕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일체 하지 않는다. 이 상담실은 한국 목회 상담 협회와 한국 기독 상담 및 심리 치료학회 기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집단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들은 상담사역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문 상담가가 상담 사역을 하고 있으며 상담사역 프로그램은 <표 2>와 같다.

<표 2> 사랑의 교회 가정 사역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1. 데이트와 결혼 세미나	· 이성 교제에 관심있는 청년들
2. 결혼 준비 교실	·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경우 · 타교인 및 비그리스도인도
3. 신혼 부부 다락방	· 신혼 부부
4. 가정 생활 세미나	· 결혼 5년 이상 · 아내반(불신 남편) · 부부반

(3) 여의도 순복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상담을 1958년부터 시작하여, 1978년에 '결혼상담소', 1980년에 '청소년 상담소', 같은 해 5월에는 '사랑의 전화', 1982년에는 '신앙 상담소'가 창설되어 활동하다가 1986년 순복음 상담소로 기구가 개편되어, 현재는 상담 기획부 내에 인터

넷 상담실, 청소년 상담실, 결혼 상담실, 신앙 상담실, 아가페 전화 상담실이 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관계없이 상담자로서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일반 평신도를 주 대상으로 상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상담실 내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상담 학교 초·중급반, 부모 역할 훈련, 목회자 상담 세미나, 장로 상담 세미나, 학부모 세미나, 집단 상담, 가정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등이 있다. 1999년 12월부터는 상담 중심의 목회로 전환되면서 ‘상담소’가 ‘상담국’으로 승격되어 상담 사역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화, 가정 상담 사역의 집중화, 인터넷 상담실의 활성화, 재직 상담 교육의 의무화 등 4대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 안내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여의도 순복음 교회 상담국의 주요 업무

구분	종 류
면담상담	신앙 상담실
	결혼 상담실
	청소년 상담실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아가페 전화 상담실
	인터넷 상담실
상담지원 및 행정	지성전 상담실
	행정실
설교	10분 설교 전화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상담국은 심리적 갈등과 신앙 문제, 가정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오순절 신앙에 입각한 치유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평신도를 상담원으로 양성하여 각 상담실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4) 온누리 교회

온누리 교회의 상담 훈련은 ‘상담의 실례를 가지고 상담 사역자

들이 받는 전문적인 상담 훈련과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와 소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담실 운영은 1999년 3월에 개설되어 전화 상담과 면접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재, 풀 타임 2명과 파트 타임 12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례받지 않는 평신도 상담자들이다. 상담 전문가는 따로 없으며 2명의 풀 타임 사역자는 권사님들이다.

당회장 목사의 상담 운영 방침이 영성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전공자 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을 상담 사역자로 세우고 있으며 상담 교육 및 훈련도 교회가 아닌 기관(두란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교육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교육 내용

학기	가정 사역
1학기	가정 사역 개론, 부부 문제 및 가정, 자녀 문제 해결
2학기	자녀 교육 1-6, 가족 치료 1-6
3학기	가정의 비밀과 내적 치유 등
4학기	가족 관계 신학, 결혼과 치유 성장, 성경과 가정 사역 등

연구자가 대형 교회 4곳을 중심으로 상담 사역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요약을 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교회별 상담 사역 현황

	영락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평신도 상담자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지속교육	1달에 1번	매주	1달에 1번	없다
당회장의 지원	적극적	아주 적극적	적극적	상담전문가와 협력관계
평신도 상담사역 형태	전화상담원으로 봉사	모든 성도의 상담자화 도모	영성 위주의 상담 사역	전문가가 주도

또한 한국의 대형 교회 32곳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상담 현황에 대해 조사한 손수현의 결과를 보면 상담 사역만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자가 있는 교회는 7교회이며 그 중 상담 전문 목회자만 있는 곳이 3교회, 상담을 전공했거나 훈련을 거친 평신도 상담자가 있는 곳이 3교회였으며, 상담 전문 목회자와 평신도 상담자가 함께 있는 곳은 1교회 밖에 없다고 보고하였다. [26]

최근의 연구 결과 중 교회의 상담 창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조사한 이재실[2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01교회 가운데 교회 내 상담창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96%인 97개 교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지만 실제로 교회 내 상담 창구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20%인 20개 교회만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종합평가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으며, 교회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전문상담자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제반 문제 때문에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하였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많은 목회자들은 상담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다수(96%) 동의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전문상담자를 두어 목회에 도움을 얻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의 상담사역이 점차 활성화되어 주변의 중소형 교회의 목회사역에 기역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목회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평신도 상담자의 활성화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평신도를 훈련시켜 상담자로 세우는 상담 사역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대형 교회 뿐 아니라 중소형 교회에도 기독교 상담 사역이 확산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6) 손수현, “목회 상담에 있어서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99), 121-122.

27) 이재실, “교회에서 상담 역할과 활용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 대학원대학교 , 2002), 18-22.

4. 기독교 상담의 목회현장 적용 사례 : 한밀교회 상담사역

1) 상담사역 도입 과정

한밀교회에서 상담사역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전 성도가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전인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서게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간의 내면 치유가 필요하다는 연구자의 목회철학 때문이었다. 연구자는 자신의 내면 치유와 영적 성숙 및 전인적 성장에 초점을 둔 상담사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모든 성도가 서로 격려하는 자로 부름받았기에 성도 간에 사랑의 관계가 넘치는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 나아간다. 셋째, 평신도 지도자를 세운다. 넷째, 상담에 은사와 열정이 있는 자를 계속 훈련하여 평신도 상담자로 사역하도록 한다. 다섯째, 상담 사역을 통해 전도의 기회를 삼는다.

한밀교회의 초기 상담 사역은 성경적 상담 관련 서적 및 기독교 심리학자의 상담 시리즈를 요약, 발표, 토론하는 모임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의 기초를 세웠다. 그리고 매년 2회에 걸쳐 4-5일 정도 매회 3시간씩 열린 주제별 세미나는 지성 개발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확립 및 영성 치유의 기회로 삼았다. 세미나 주제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정생활, 하나님의 치유 등 다양한 주제로 시행되었으며 10년간 약 18회 정도 개최했다. 또한 년 1~2회의 합숙 캠프(3박4일, 또는 4박5일)를 통해서 집단 공동체 경험과 신앙 성숙 및 자신과 타인 이해, 그리고 전인격적 성숙을 도모하였다.

연구자는 소그룹 상담(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교인들에게 성숙과 변화의 삶을 살게끔 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면서 1996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전 교인들에게 확산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확대하여 전도의 접촉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상담에 관심과 은사가 있으며 자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평신도 상담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1998년 1월에는 '상담 사역 및 가정 사역 위원회'를 발족하여 교

회 내외적으로 ‘치유와 성장 세미나’, ‘성경적 상담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6월에 2, 3, 4, 5차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등 상담 사역이 전교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연구자가 풀러신학대학원 박사 논문으로 평신도 상담자 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평신도 상담 훈련과정을 총 4학기, 2년제로 하여 평신도들을 훈련하였다. 이때 상담을 전공한(석사) 평신도 상담자 2명과 상담 훈련을 마친 3명의 평신도들이 격일로 상담실에 근무하면서 전화 상담 및 면접 상담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인도 하에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 30여명이 매주 2~3시간씩 지속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그들은 다시 주 1회씩 4-10여 명의 소그룹으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 및 상담 사역을 실시하였다.

현재 연구자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4학기 훈련 과정은 <표 6>과 같다.

<표 6> 평신도 상담자 훈련 내용

	주제	목적
1학기	집단 상담	집단의 역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배우며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익힌다.
2학기	인격 치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의 내적상처와 아픔을 기독교 상담과 인지치료적 기법으로 치료한다.
3학기	부부 치료	성경적 부부 관계의 원리와 부부의 심리를 이해하고 갈등을 치료한다.
4학기	수퍼 비전	각 상담이론을 연구, 실습한 후 지도 감독을 받는다.
특징	① 정원 : 20여명 이하 ② 전 단계를 이수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음 ③ 시간 : 3시간 정도 소요되며 각 10회기로 이루어짐 ④ 훈련 모임 : 치료적 모임이 아님.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함 ⑤ 자격 : 구원의 확신, 제자 훈련 과정 이수자, 상담의 은사 있는 자	

2) 현재의 상담 사역 실제

2001년도에는 한밀상담연구소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소장(연구자)과 부소장 외에 상담 관련 석사 졸업자인 전임간사 2명, 연구원 2명과 석사 과정 중에 있는 상담연구원 4명 등 총 10명이 상담연구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교회 내외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밀상담연구소의 상담사역은 크게 상담 및 심리치료, 임상훈련, 세미나 과정, 그리고 심리검사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역은 개인 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성격과 대상에 따라 담임목사인 소장과 상담연구소의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경우 목자나 원투원 리더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훈련은 소장인 연구자가 주로 인도하며 전문상담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훈련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미나 과정은 초기에는 연구자가 전 교인 및 지역 주민(불신자 포함)을 대상으로 가정사역 위주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부소장과 전임간사에게 많이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검사는 타 기관에서 훈련된 연구원이 주로 진행하고 있다.

한밀상담연구소의 주 사역내용 및 프로그램은 <표 7>과 같다.

이외에도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와 하이패밀리,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한국가정사역학회, 건강가정 시민연대, 그리고 한국 NCD 등 다른 기독교 학교나 단체와 협력적으로 교류하면서 기독교 상담사역의 네트웍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표 7> 한밀상담연구소 사역 내용

프로그램	내용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개인상담	청소년, 청년, 성인
	부부상담	부부
	가족상담	가족
	집단상담 (사랑의 관계를 위한 집단상담, 치유와 성장모임, 청소년진로탐색집단, MBTI 웍샵)	청년, 성인 남녀 누구나
임상훈련	감수성훈련, 집단심리치료	집단상담훈련 받은 사람
	수퍼비전 / 인턴, 레지던트 교육	일정한 상담교육이나 훈련 마친 자
세미나 과정	사랑의 관계 클리닉	청년, 성인
	결혼준비교육	데이트 중인 남녀, 결혼날짜 정한 커플
	가정사역 (부부치료, 부부치료실습, 부부성장학교, 부모교육세미나Ⅰ·Ⅱ, 아버지,어머니 학교)	가정사역에 관심있는 자
	인격치료	내적상처치료 및 인격회복에 관심있는 자
심리검사	성인심리검사 (MMPI, MBTI, EGOGRAM)	청년, 성인
	아동심리검사	아동

3) 평가

위에서 제시한 목표 하에 기독교 상담 전략을 가지고 인간관계 훈련 및 가정사역 프로그램과 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사랑의 관계 훈련 프로그램'[28]은 이 목표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과

28) 사랑의 관계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도록 한다. 셋째,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짐으로써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해 영적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다른 영혼의 성장을 돕는 사랑의 창조자로서 살도록 한다. 여섯째, 이 과정을 통해 교회공동체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훈련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관계를 훈련받아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며 관계전도 능력도 향상된다. 둘째, 리더십이 개발되므

학적으로도 상담자 훈련에 아주 효과적이었음이 통계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사랑의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29]

(1)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

‘사랑의 관계 프로그램’이 의사소통능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8>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에 대한 t검증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p
	M	SD	M	SD		
실험집단 (N=20)	11.75	3.01	14.15	2.25	-4.37	.00*
통제집단 (n=20)	11.15	4.30	11.05	2.95	.15	.88

(점수범위 0-20점) (p<.01)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실험 집단(훈련을 한 집단)은 훈련받기 전의 사전 검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11.75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는 14.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통제집단(훈련받지 않은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11.15에서 실험 집단과 비슷하였는데 사후 검사에서는 11.05로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 이 수치는 연구자가 개발한 ‘사랑의 관계 프로그램’이 상담자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2) 공감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효과

‘사랑의 관계 프로그램’이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로 평신도 지도자 발굴에 아주 효과적이다. 셋째, 기독교 상담적 안목이 생기며 상담기술도 배움으로써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도울 수 있다. 넷째, 성도들의 전인적 성장이 일어나며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 부흥한다. 다섯째, 셀 교회의 기초 교재로 사용하면 전인적 소그룹 형성에 도움이 된다.

29) 심수명, 164-166.

<표 9> 공감적 언어표현에 대한 집단간의 사전 사후에 대한 t검증

	사전 검사		사후 검사		t	p
	M	SD	M	SD		
실험집단	41.10	12.70	50.00	10.71	-4.75	.00**
통제집단	39.90	14.09	36.05	12.06	2.77	.01*

**p<.01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 41.10에서 훈련받은 후 50.00으로 매우 의미 있게 향상되었으며 통제 집단은 사전이 39.90에서 사후 검사에서 36.05로 오히려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상담자들의 공감적 언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초심 상담가들도 훈련만 잘 받으면 공감 능력이 향상되어 상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상담자 자기 평가에 미치는 효과

'사랑의 관계 프로그램'이 상담자의 자기 평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상담자 자기 평가의 집단간 평균 비교

하위 변인	실험 집단				t값	통제 집단				t값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SD	M	SD		M	SD	M	SD	
상담 지식	5.40	2.21	6.75	1.44	-3.00*	4.70	1.62	5.00	1.52	-.97
기독교 상담 지식	4.65	1.81	6.80	1.43	-4.67*	4.35	1.38	4.80	1.64	-1.30
경청 능력	6.75	1.16	7.55	1.60	-2.13*	5.90	1.61	5.85	1.69	.18
공감 능력	6.60	1.14	7.25	1.44	-2.09	5.65	1.34	6.05	1.27	-1.25
감정표현 능력	6.60	1.72	7.30	1.68	-1.70	5.75	1.83	5.65	1.98	.24
자기개방 능력	6.25	1.11	7.50	1.46	-3.68*	6.50	1.90	6.10	1.37	.98
직면 능력	5.70	1.08	6.20	1.85	-1.22	5.70	1.97	5.75	1.71	-.17

*p<.05

<표 10>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7가지 요인 중에서 상담 지식, 기독상담 지식, 경청, 그리고 자기 개방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공감, 감정 표현, 직면 능력에서는 실험 집단의 변화가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랑의 관계 프로그램'이 상담 기술 습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적 현실에서 평신도를 상담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공식화된 프로그램이 없던 때에 아주 고무적인 일이며, 국내에서 최초로 평신도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비전문가라도 지속적인 상담 훈련을 통하여 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목회자가 상담 사역에 있어 평신도와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었다.

(4) NCD의 평가 결과

위의 연구 결과 뿐 아니라 교회성장 평가 전문기관인 NCD[30] (Natural Church Development) KOREA에 의한 한밀교회 평가에 의하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의 8개 척도에 의한 1차(2000년 3월)와 2차(2001년 1월)의 결과 최소치였던 필요중심적 전도의 점수가 41점에서 60점으로 19점이나 향상되었으며, 사랑의 관계는 70점에서 97점으로 27점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한밀교회가 다른 모든 훈련과 함께 기독교 상담사역을 꾸준히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는 자평한다.[31] 현재는 '사랑의 관계 클리닉'이라

30) NCD란 자연적 교회성장원리로서 6대주 32개국 1,000여개 샘플교회의 420만 자료로부터 추출된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이다. 현재 50개국 5,000여개 2,100만 자료로 발전한 전세계 모든 문화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며 NCD 원리를 적용한 결과 99.4퍼센트 질적 양적 성장이 전세계 50개국에서 검증되었다. NCD KOREA는 이 원리를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체이다. Christian A.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외 역, 「자연적 교회성장」(서울: NCD, 1999)

31) NCD진단 점수의 의미는 8개척도 점수가 각각 65점 이상이어야 하며 점수간

는 공식 명칭으로 한국 NCD와 함께 한국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28차에 이르고 있다.

<표 11> 한밀교회의 NCD진단 결과

내용	2000년	2001년	2002년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58	71	72
은사 중심적 사역	59	83	66
열정적 영성	45	70	69
기능적 조직	61	72	76
영감 있는 예배	49	60	73
전인적 소그룹	60	79	86
필요 중심적 전도	41	60	73
사랑의 관계	70	97	94
평균	55	74	76

III. 닫는 글

교회에서 상담사역을 시작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독교 상담의 정의에서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상담에서 필요한 3가지 구성 요소는 '도움을 주는 사람(상담자), 상담에 사용된 기법, 그리고 상담 목표'라고 앞에서 서술하였다. 이중에서 상담 사역을 실제로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훈련된 상담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훈련된 상담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상담자가 되려면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 실제, 그리고 실습 등 세 영역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 즉, 상담이론과 실제에 대한

의 편차가 적을수록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자연히 질적, 양적인 부흥이 따라오는 것이다.

교육 뿐 아니라 상담 실습까지 소화해내야 한다. 그렇다면 상담사역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상담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연구자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실제로 상담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의 실태를 파악한 후에 자신의 교회 여건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응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제언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한밀교회의 현장보고가 실제로 기독교상담을 목회현장에 적용하려는 목회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담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목회자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담 사역을 시작하려는 목회자들은 기독교 상담이 성도를 성숙케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므로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사역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자원 및 성경과 기도의 자원이 동시에 균형있게 강조되어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구원과 치료, 성숙을 위한 훈련과 선교의 중심지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지도 하에서 상담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교회라는 맥락에서 상담하는 자이다. 그리고 교회공동체와 성경, 그리고 기도라는 영적인 자원 외에도 상담을 통한 전도의 접촉점 마련, 상담 메시지의 전달, 영적 훈련을 포함한 기독교 상담 등과 같이 교회 내에서 상담사역이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확장에 부응하는 사역이 되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자원은 결국 영적인 실력(영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독교 상담은 예방상담과 단기상담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방상담(preventive helping)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 예방상담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문제를 막을 수 있게 하고, 문제의 영향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한다.[32] 또한 기독교 상담은 그 특성상 단기상담으로 접근된다. 단기상담은 치료의 목적을 구체화, 단순 명료화 시켜서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33]

이제 목회는 더 이상 '찾아가는 목회'가 아니라 '찾아오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찾아가는 목회는 한 개인이나 그 가정만이 그 대상일 수 있으나, '찾아오는 목회'는 한정된 시간 내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목회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찾아오게 하는 목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상담중심의 목회'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목회의 성공여부는 '목회적 전문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34] 이럴 경우, 목회자 한 사람이 목회의 모든 분야를 감당해야 하는 목회 형태를 지양하고 목회자들 간, 교회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목회사역 과중으로 인한 탈진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신도 상담자들을 개발하고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어감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KCI

※ 참고문헌

<국내서적>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 학지사. 1995.
김만풍. "전인치유에 있어서 목회상담의 역할."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김영한. "심리학과 신학: 심리 치료와 목회 상담." 「새천년 목회

32)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162-163.

33) 김계현,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학지사, 1995), 225.

34) 오제은, 194.

상담과 심리 치료의 실제」숭실 대학교 제8회 전국 목회자 신학 세미나. (2000).
김예식. 「말씀 안의 상담과 치유 이야기」.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0.
반피득. 「목회상담」.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손수현. “목회 상담에 있어서 평신도 상담의 필요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99.
심수명.「평신도 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서울: 서로사랑. 2001.
_____. “평신도 상담자 훈련 모형에 관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 대학원. 2001.
오성춘. 「목회 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3.
오제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위한 목회상담에서의 치유적 패러다임.” 「기독신학저널」 통권 제3호(2002).
이재실. “교회에서 상담 역할과 활용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02.
전요섭. 「기독교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좋은나무. 2001.
정동섭.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서울: 요단출판사. 1999.
황규명. “상담과 목회의 실제.” 한국 성경적 상담학회. 「성경과 상담」 제 2권(2002).

<번역서적>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혜련 역. 「크리스챤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1984.
_____. *How to Be a People Helper.* 정동섭 역. 「훌륭한 상담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Crabb, Lawrence. *Understanding People.* 윤종석 역. 「인간 이해와 상담」. 서울: 두란노. 1993.
Hurding, Roger. *Roots and Shoots: A Guide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김예식 역. 「치유 나무」.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Schwarz, Christian A.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외 역.「자연적 교회성장」. 서울: NCD. 1999.

Siang-Yang, Tan. *A Lay Counselor.* 편집부 역. 「평신도 상담자」. 서울 :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9.

Wright, Norman. *How to bring out the best in your spouse*. 임종원 역.「당신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방법」.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9

<외국서적>

Collins, Gary R. *Case Studies in Christian Counseling*. Dallas: Word, 1991.

Haugk, Kenneth C. *Christian Caregiving-A Way of Life*. Minneapolis: Augsburg, 1984.

Moltmann, Jürgen. *The Crucified God: The Cross of Jesus as the Foundation and Criticism of Christian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3.

Oates, W. E.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ounseling*. Nashvile: Broadman, 1959.

Wright, Norman. *Training Christians to Counsel*. Eugene, Oregon: Harvest, 1977.

Abstract

As for Christian counseling in search of applying into real pastoral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pecific way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applying pastoral field. This study firstly summarized what the Bible said about the counseling and focused on the definition, the object, the characteristics and the necessity of Christian counseling. In addition, the study seeked to suggest the integrated model between the theology and psychology so that Christian counseling could be applied into contemporary pastoral area. It also mentioned the actual state of counseling of large-sized churches and the result of the present counseling condition from other churches in Korea.

To explain the achievement of this study, the counseling work of Hanmil church where I have served as a pastor is introduced as an example. In Hanmil counseling case, you can find how counseling service of Hanmil church has developed and how counseling team works in present. Also this study explains how Hanmil counseling service made good result by verifying statistically the result of 'Loving Relationship Program', which is one of the counseling programs of Hanmil church.

Therefore, this purpose of study was not only to define but also to expand the possibility to apply its Christian

counseling into contemporary churches by reviewing Hanmil church case study.

*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pastoral field, the integrated model Hanmil church, Loving Relationship Program

KCI